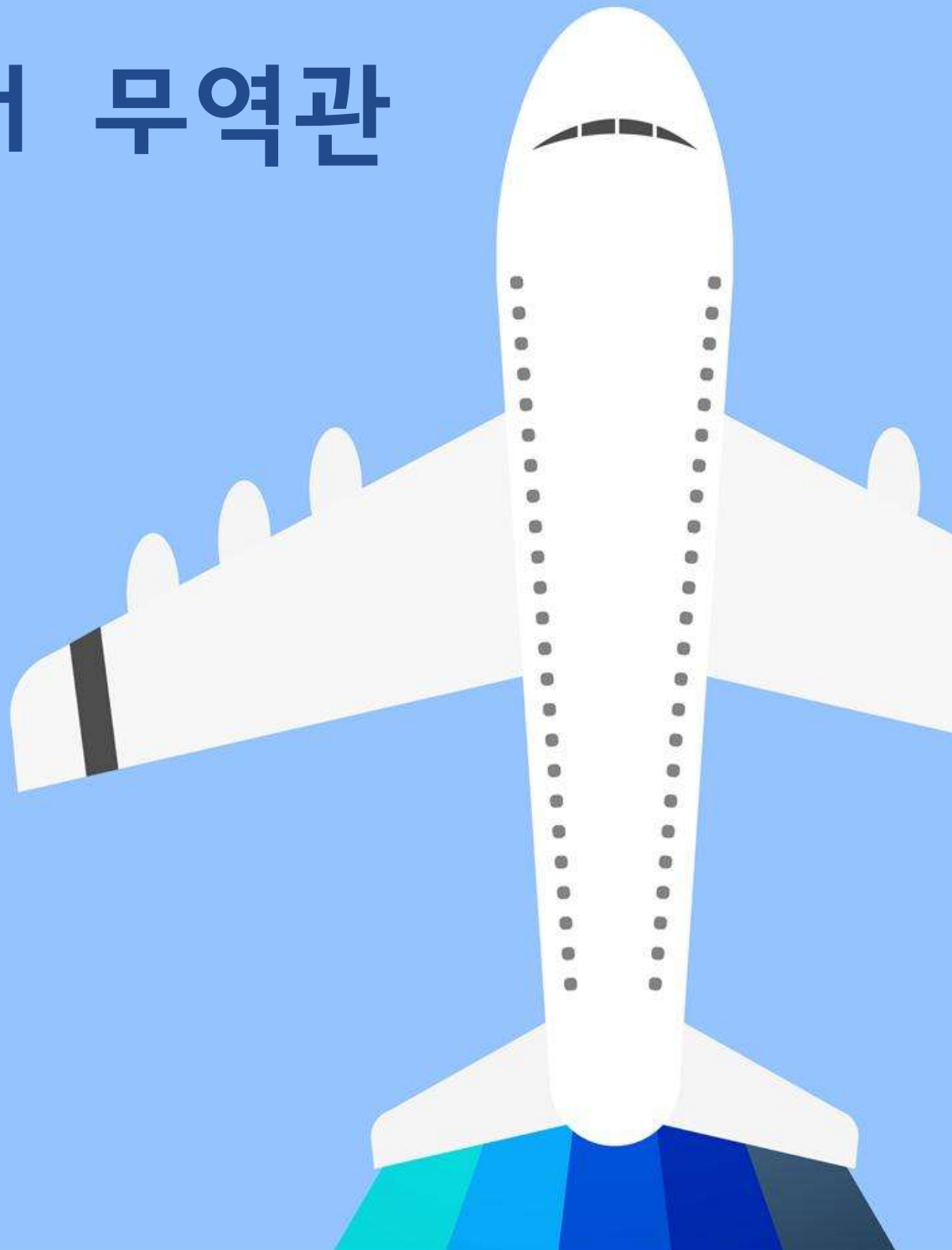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 캐나다

## 밴쿠버 무역관

*Vancouve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I. 현지 체류 정보	1
II. 캐나다 경제 동향	3
III. 한·캐 교류 현황	9
IV. 캐나다 서부 경제 개황	11
V. 2021년 서부 시장 전망	16
[붙임] 현지 체류 참고자료	19

## 1. 현지 체류 정보

### 1. 현지 기후

#### 밴쿠버 날씨

- 밴쿠버의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한 해 평균 강우량은 1,283mm 정도임. 가장 건조한 달은 7월이며 12월 평균 강우량이 많음

### 2. 체류 유의사항

#### 복장(의류)

- 북위 49도 위치, 해양성기후를 띄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건조한 편. 일교차에 대비 얇은 긴소매와 외투 준비 필요
- 금융계 종사자, 공무원은 일반적인 정장 차림(양복 바지, 와이셔츠)이나 넥타이는 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음식

- 밴쿠버 중심지 Robson Street를 중심으로 다수의 한식당이 있음
- 이외에도 시내 중심가에 대형 한국식품 supermarket(H-mart : 590 Robson Street)이 있어 컵라면 등 한국식품은 쉽게 구매 가능

#### 시차

- 한국 표준시간 KST -16시간 (서머타임 기간)\*
  - 예) 밴쿠버 3월 12일 오후 5시 = 한국시간 3월 13일 오전 9시
  - \* 서머타임 기간: 3월 12일(일) ~ 11월 4일(토)

#### 전기

- 전압(주파수) : 110볼트(60 Hz)
- 플러그 adaptor 휴대 필요(오른쪽 그림 참조)



## □ 치안

- 밴쿠버 도심은 비교적 안전하나, 도심 동쪽 지역은 슬럼가로 노숙자(Homeless)들이 상주하는 곳으로 주의를 요함

## □ 세금 및 팁 관행

- 모든 제품, 서비스 구입 시 12%의 세금 (주정부세 7%, 연방세 5%)이 별도로 부과됨
  - 식당 이용 시, 세금 포함된 요금의 10~15% 수준의 팁이 일반적임. 6~8명 이상 단체 손님 이용 시 16~18% 팁(Gratitude)이 자동으로 부과되는 때도 있어서 명세서를 확인할 필요 있음

## □ 현금 사용

- 신용카드는 대부분 통용되나, 비상시를 대비 현금 보유 필요

## 3. 주요 연락처

### □ 밴쿠버무역관

- 주 소 :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E1
- 전 화 : +1-604-683-1820 / 팩 스 : +1-604-687-6249
- 이메일 : ktc@kotrayvr.com

### □ 밴쿠버 총영사관

- 주소 :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전화 : 1-604-681-9581 / 팩스 : 1-604-681-4864

## II. 캐나다 경제 동향

### 1. 국가 개요

<b>국 가 명</b>	캐나다 (CANADA)
<b>수 도</b>	오타와(Ottawa) (* '교역하다'라는 뜻의 원주민어 'adawe'에서 유래)
<b>면 적</b>	9,984,670 km <sup>2</sup> (세계 2위, 한반도 45배)
<b>기 후</b>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연안), 한대성(북극권)
<b>인 구</b>	3,806만 명 (2021.6월)
<b>연방구성</b>	10개 주(Province) 및 3개 준주(Territory)
<b>주요도시</b>	Toronto(606만 명), Montreal(403만 명), Vancouver(247만 명), Ottawa (132만 명), Calgary (141만 명), Edmonton (133만), Quebec City (80만) 등
<b>언 어</b>	이중 공용어 (영어 58% 및 불어 22%)
<b>민 족</b>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국가 (15%), 원주민 (2%) 기타 아시안, 흑인, 아랍계 (6%), 기타 혼혈 (26%)
<b>종 교</b>	가톨릭(43.6%), 개신교(29.2%), 기타(6.7% 이슬람, 유대교 등)
<b>국 체</b>	입헌군주국 (영연방)
<b>정 체</b>	의원내각제 (양원제)
<b>화 폐</b>	캐나다 달러(dollar) (* 1 CAD ≒ 0.76 USD)
<b>건국(독립)일</b>	1867년 7월 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b>국가원수 [실권자]</b>	○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 ○ 취임일: 1952.2.6
	○ 총독: Richard Wagner (수상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취임일: 2021.1월 (임기 5년+)
	○ 수상: Justin Trudeau (실권자) ○ 취임일: 2015.11.4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2. 최근 경제 개황

### □ 캐나다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USD	1,650조	1,721조	1,741조	1,643조
1인당 GDP	USD	45,070	45,368	46,212	43,278
실질경제성장률	%	3.0	2.4	1.9	-5.4
물가상승률	%	1.6	1.8	1.9	0.7
실업률	%	6.3	5.2	5.7	9.6
대미환율	CAD/USD	0.77	0.77	0.75	0.74
수출	USD	4,205억	4,510억	4,465억	3,893
수입	USD	4,328억	4,599억	4,531억	4,042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World Data Atlas, Trade Data Online, Bank of Canada

### □ 2021년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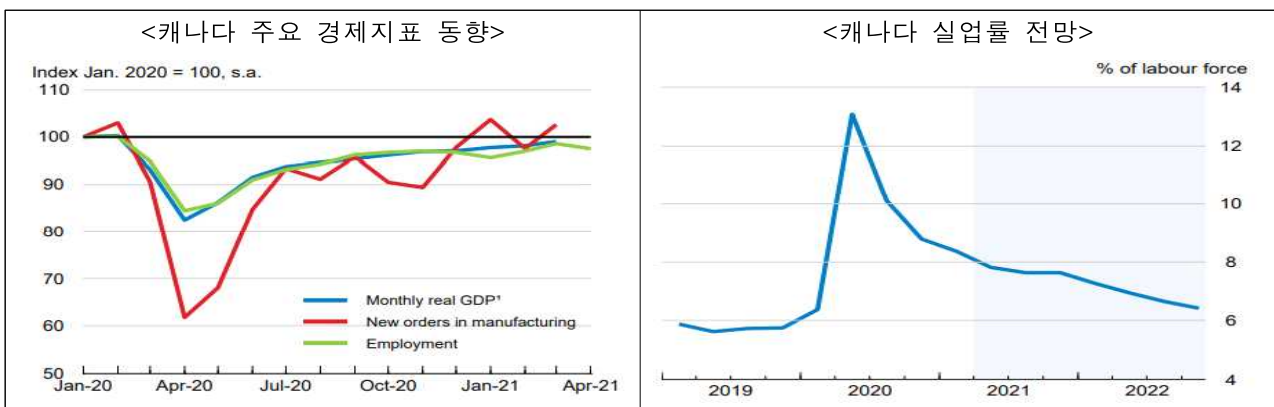
- 2021년 경제활동 재개와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힘입어 경기회복 낙관 기대
  - 실질 GDP: 작년 -5.4%에서 올해 6.1%로 고성장기대(OECD, 2021년 6월)
  - 성장요인: ①주택경기 회복 ②고용성장 ③에너지 수출확대 ④대외 교역환경 개선

<캐나다 실질 GDP 전망>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캐나다	-5.4%	6.1%	3.8%

자료원: OECD 경제전망 보고서

- 1분기 GDP 반등 성공, 하반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성장세 위축 우려
  - 2021년 1분기 실질 GDP 반등 ⇨ 2월, 3월에 각각 0.4%, 0.9% 증가, 고용시장 회복 등 비즈니스 투자 심리 개선 뚜렷
  - 하지만 하반기 코로나 4차 확산 여파로 경제 재개 지연, 성장세 둔화 가능



자료원: OECD 경제전망 보고서

### 3. 캐나다 대외 무역(2021년 7월 누적 교역액 기준)

#### □ 수출입 동향

- 코로나19 이후 2021년 교역규모 크게 증가, 7월 상반기 누적 무역수지 흑자 기록
  - (무역규모) 전년 대비 28.2% 증가(수출 32.0%↑, 수입 24.5%↑)
  - (무역수지) 2021년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 전환(64억 3,700만 달러)

< 캐나다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

(단위: US\$백만)

구분	2019	2020	2021(7월)	전년 동기 증감률
수출	446,548	389,346	282,302	+32.0%
수입	453,142	404,242	275,865	+24.5%
무역수지	-6,594	-14,896	6,437	+183.2%

자료원: Trade Data Online

#### □ 국가별 현황

- 주요 무역 대상국, ①미국 ②중국 ③멕시코 ④독일 ⑤한국 ⑥일본 등임
  - (대美 무역) 2021년 상반기 대美 무역 흑자 765억 달러 기록
  - (대韓 무역) 2021년 상반기 대韓 무역 적자 22억 9,000만 달러 기록

<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대상국 >

(단위: US\$백만)

국가명	수출			국가명	수입		
	2020	2021(7월)	증감(%)		2020	2021(7월)	증감(%)
미국	285,672	211,256	34.5	미국	197,328	134,741	22.7
중국	18,797	13,432	30.8	중국	57,025	36,486	24.2
영국	14,843	8,000	6.9	멕시코	22,294	15,034	26.8
일본	9,231	6,486	21.9	독일	12,898	8,806	22.4
멕시코	4,583	3,898	61.1	일본	10,088	7,520	39.1
독일	4,751	3,036	16.9	이탈리아	6,713	4,748	31.4
한국	3,506	2,431	20.5	한국	7,133	4,721	21.7
네덜란드	4,033	2,246	11.6	베트남	6,089	4,261	45.3
홍콩	1,419	1,716	92.1	영국	5,845	3,791	10.8
프랑스	2,765	1,664	11.8	프랑스	4,828	3,342	21.4
총계	349,600	254,166	32.7	총계	330,241	223,450	24.0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품목별 수출입

- 2021년 상반기, 원유, 목재, 철광 등 원자재 수출 급증. 백신, 정유 수입 증가
  - (주요 수출품) 수출 상위 10대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수출 증가(44.7%↑)  
제재목(163.0%), LPG(116.2%), 원유(56.3%), 철광(50.2%) 등
  - (주요 수입품) 수입 상위 10대 품목 중 금을 제외한 9개 품목 수입 증가(26.5%↑)  
백신(74.7%), 승용차(53.3%), 화물차(32.7%), 정유(31.6%) 등
- 경제 재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원유, 정유, LPG 등 에너지 자원 교역 회복
  - 상반기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 이후 정유 등 에너지 자원은 물론 승용차, 화물차 등 자동차 수입 규모가 크게 성장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2021년에도 백신 수입 증가세 지속. 또한 국내는 물론 美 주택건설 시장에서 제재목 수요가 작년에 이어 급증하며 수출 증가

< 캐나다의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0	2021 (7월)	증감(%)	코드	품목	2020	2021 (7월)	증감(%)
1	2709	원유	47,563	42,511	56.3	8703	승용차	21,853	16,835	53.3
2	8703	승용차	31,996	16,432	8.1	8704	화물차	11,776	8,355	32.7
3	4407	제재목	7,736	9,330	163.0	8708	자동차부품	14,368	8,026	10.6
4	7108	금	16,010	9,263	6.6	2710	정유(석유)	8,318	7,149	31.6
5	2711	LPG	6,993	7,622	116.2	2709	원유	8,559	6,408	27.1
6	2710	정유(석유)	7,184	6,357	48.7	8471	PC 부품	9,851	6,171	17.4
7	8708	자동차부품	9,069	6,268	39.5	8517	전화기	9,823	5,943	25.0
8	7601	알루미늄	5,448	4,401	40.6	3004	의약품	8,514	5,109	7.4
9	2601	철광	5,716	4,322	50.2	3002	백신	5,003	5,010	74.7
10	1001	밀	6,296	4,320	19.0	7108	금	8,699	3,760	-23.3
합계			144,011	110,826	44.7%	합계		106,764	72,766	26.5%

주: HS 코드 4단위 기준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4. 캐나다 시장특성

### □ 지역별 뚜렷한 산업구조

- 캐나다는 동, 서부 지역별 산업구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따라서 현지 시장 진출 시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구분	주요 지역	GDP 비중	주요산업 및 특성
동부	온타리오, 퀘벡	약72%	- 제조업체(항공, 자동차, 철강 등) 집중 - 대부분의 기업 본사 소재
서부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약28%	- 1차 산업 및 서비스업 발달 * BC주: 광업, 임업, 서비스업 * AB,SK주: 광업, 농식품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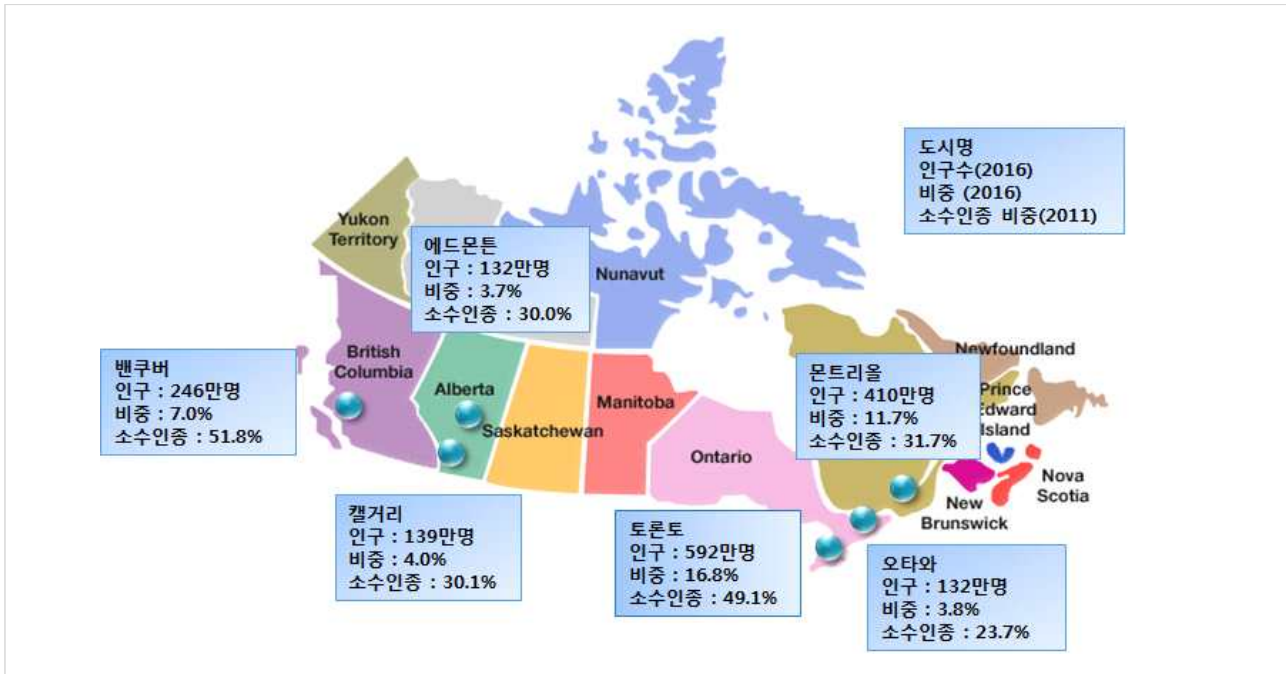
### □ 미국 의존성이 높고 완제품 위주의 시장

- 미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국, 전체 교역량의 약 66% 차지 (수출 77%, 수입 54%)
  - 미국 경기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며 다른 국가제품들이 미국을 통해 재수입되는 경우도 많음
- 캐나다는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해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완제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 아시안계 이민자 시장 급성장

- 캐나다는 다민족주의(multi-culturalism)사회로 민족별 특성상품 시장이 존재하며 민족 간 소비패턴이 상이함
  - 오랜 이민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독일, 이탈리아계가 대도시 상권 형성
  - 소비패턴 (유럽계) 스포츠, 레저,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 강함 (중국계) 주택, 자동차 등 고액 소요 분야 소비력 강함
- 최근 중국, 인도계 이민 급증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에서도 이민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개
  - BC주 식품업 바이어 상당수가 아시아계임 (밴쿠버는 아시아계가 주류)

<캐나다 주요 7대 도시별 인구 및 소수인종 비중>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제품별 상이한 유통망의 통합 추세

-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제품별로 별도의 유통망이 존재함. 가전, 생활용품, 식료품, 의류, 주류 등 제품에 따라 상이한 유통망 존재
  - 가전: Future Shop, Radio Shack, Best Buy, Visions 등
  - 주류: Liquor Store
  - 생활용품: Canadian Tire, Rona, HomeDepot
  - 식료품: Loblaw, SupreStore, SafeWay, SaveOnFood, H-Mart(한인매장) 등
  - 의류: 백화점(The Bay, Sears, Zellers), SportsCheck 등
  
- 최근 유통망의 치열한 경쟁 및 실적 감소 등으로 유통망들이 주류(정부 독점)를 제외한 기존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취급 시작
  - 월마트, 코스트코, 홈쇼핑(The Shopping Channel) 등
  - 최근 대형 소매판매점 등도 직수입 및 유통 시작

### Ⅲ. 한·캐 교류 현황

#### 1. 한·캐 무역 동향(2021년 7월 누적 교역액 기준)

##### □ 수출입 동향

○ 2021년 7월까지 한·캐 누적 교역규모, 전년 대비 21.3% 증가한 71억 5,200만 달러 기록

- (수출) 47억 2,100만 달러(전년 대비 21.7% 증가)
- (수입) 24억 3,100만 달러(전년 대비 20.5% 증가)

##### □ 품목별 동향

- 상위 10대 교역 품목, 수출액 전년 대비 55.3%, 수입액 17.3% 증가
- 작년에 이어 백신 수출 급증. 원자재 수요가 늘어 LPG, 니켈 등 수입 증가
- (주요 수출품) 백신(402.6%), 은(267.9%), 승용차(52.3%), 펌프(47.3%)
- (주요 수입품) 금(914.2%), LPG(528.1%), 니켈(259.9%), 유연탄(-31.4%)

< 한국의 對 캐나다 1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0	2021 (7월)	증감(%)	코드	품목	2020	2021 (7월)	증감(%)	
1	8703	승용차	2,691	1,979	52.3	2701	유연탄	785	324	-31.4	
9	3002	백신류	85	154	402.6	2601	철광	305	257	26.2	
4	8708	자동차부품	206	125	15.4	7108	금	22	232	914.2	
3	8517	전화기	211	106	9.3	2603	동광	585	129	-55.9	
5	7106	은	153	79	267.9	1514	유채유	93	114	158.5	
7	8413	액체펌프	89	69	47.3	4705	펠프	93	85	46.9	
6	8507	축전지	127	68	11.7	2711	LPG	13	83	528.1	
10	8542	전자집적회로	83	68	65.0	0203	돼지고기	98	69	31.2	
8	8429	건설기계	85	68	34.6	4703	화학목재펠프	70	69	64.3	
2	7216	철강	81	65	86.7	7502	니켈	41	68	259.9	
합계			3,811	2,786	55.3	합계			2,105	1,430	17.3

주: HS Code 4단위 기준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2. 한·캐 투자 동향

### □ 캐나다의 對 한국 투자 현황(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 참고)

- (연도별) 2020년 전년 대비 190.9% 증가한 18.5억 달러 기록(4년 연속 증가세)  
-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比 53.1% 증가한 49건 기록

(단위 : US\$백만)

연도	2017	2018	2019	2020
신고금액	389	410	635	1,847
신고건수	81	43	32	49

- (업종별) 금융·보험(11.1억 달러), 부동산, 연구개발, 유틸리티 순임  
- 특히 금융, 연구개발, 유틸리티, 식품 부문 투자에서 고성장 기록

(단위 : US\$백만)

구분	2019		2020		증감현황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금융·보험	4	128	10	1,113	150	770
부동산	4	352	4	297	0	-16
연구개발	6	103	7	212	17	106
유틸리티	0	0	5	198	500	19700
의약	1	20	1	20	0	0
식품	1	1	1	5	0	400

### □ 한국의 對 캐나다 투자 현황(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동향 자료’ 참고)

- (연도별) 2020년 우리 기업의 대캐나다 직접투자는(신고기준) 전년比 52.2% 하락한 22.3억 달러 기록  
-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比 19.3% 감소한 92건 기록

(단위 : US\$백만)

연도	2017	2018	2019	2020
신고금액	632	1,803	4,682	2,236
신고건수	101	102	114	92

- (업종별) 금융·보험업종 투자가 유일하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 유틸리티, 부동산, 광업, 제조 등 거의 전 부문에서 투자 감소 기록

(단위 : US\$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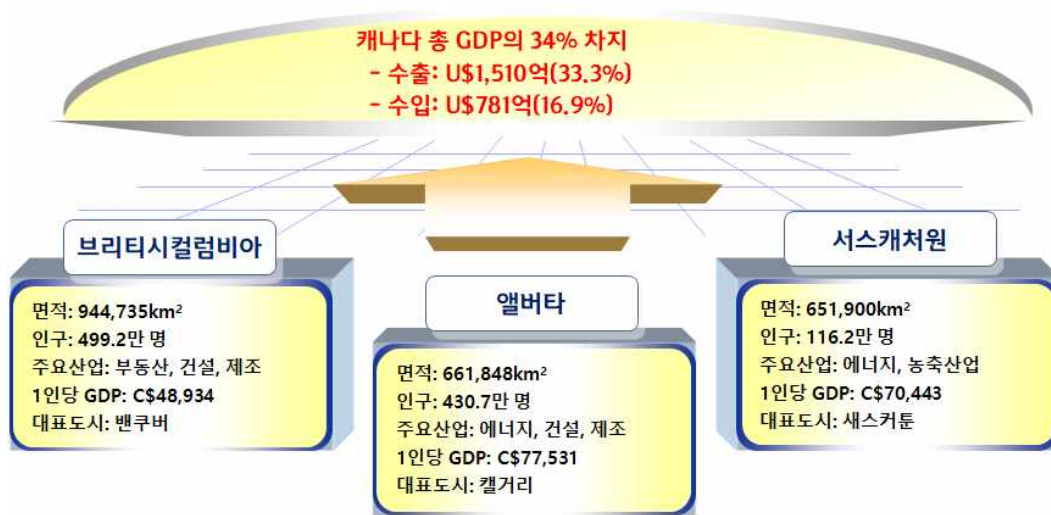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증감현황(%)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금융·보험	10	551	27	1,278	170.0	131.9
유틸리티(전기/가스)	8	2,371	8	601	0.0	-74.7
부동산	11	864	11	109	0.0	-87.4
광업	20	339	13	99	-35.0	-70.8
제조	20	431	12	91	-40.0	-78.9
연구개발	9	67	5	55	-44.4	-17.9

## IV. 캐나다 서부 개황

### 1. 지역 현황

#### □ 개요

- 캐나다 서부 지역 5개 (준)주 위치 ⇨ 하지만 경제·산업은 3개 주에 집중
  - (지리개관) 대한민국 면적의 23배, 인구는 1,100만 명 정도로 1/5 수준
  - (경제규모) 실질 GDP C\$6,600억(캐나다 전체 GDP의 34% 차지)



-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는 약 7만 1,750명(2016년 인구센서스 기준)
  - (모국어 기준) 영어(700만 명, 72.9%) vs 한국어(7만 1천 명, 0.7%)
  - (인종 기준) 코카서스인(710만 명, 74.7%) vs 한국인(8만 3천 명, 0.9%)

<加 서부 3개 주 한인 구성 현황(2016년 인구센서스 통계 기준)>

구분	BC	앨버타	서스캐처원	합계
언어 (모국어*)	영어: 68.9% 한국어: 1.1%	영어: 74.3% 한국어: 0.4%	영어: 82.4% 한국어: 0.2%	영어: 72.9% 한국어: 0.7%
인종	코카서스: 69.7% 한국: 1.3%	코카서스: 76.5% 한국: 0.5%	코카서스: 89.2% 한국: 0.2%	코카서스: 74.7% 한국: 0.9%

\* 모국어: 출생 후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운 언어(First Language).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경우 새로이 습득한 Second Language를 모국어로 인정

## □ 집권 정당 현황

○ 서부 5개 주 '5당 5색'

- (집권정당) 신민당(1) + 보수당(1) + 서스캐처원당(1) + 자유당(1) + 무소속(1)
- (정치성향) 진보성향(2) + 보수성향(2) + 무소속(1)

지역	수상		집권당	정치성향	정부형태
BC	John Horgan		신민당 (NDP)	진보	소수정부 (Minority)
앨버타	Jason Kenney		보수당 (UCP)	중도우파	다수정부 (Majority)
서스캐처원	Scott Moe		서스캐처원당 (SP)	중도우파	다수정부 (Majority)
유콘	Sandy Silver		자유당 (Liberal)	중도좌파	다수정부 (Majority)
노스웨스트 준주	Caroline Cochrane		무소속 (합의제)	-	-

## □ 서부 정치 상황

○ 연방 정책 둘러싼 정치적 갈등 잠재

-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연방-주 정부, 서부 주 정부들 간 갈등 내재
- 주요 에너지 인프라 사업 추진이 지연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  
<캐나다 연방 vs 지방정부 주요 에너지 정책 이슈>

주요 이슈	상세 내용
탄소세 부과	- 연방정부는 국가 탄소세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에 탄소세 부과 결정
송유관 건설	- 연방정부가 BC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랜스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 승인
유조선 접안	- Bill C-48(유조선 접안 금지법안)이 캐나다 상원에서 통과한 것에 앨버타가 강력 반발

## 2. 경제 현황(2020년 GDP 분석, 단위는 캐나다 달러임)

### □ 경제지표

- 加 서부 3개 주 평균 성장률(-5.8%), 전국 평균 상회, 앨버타 성장률 전국 최저  
 - (성장률) BC(-3.8%) > 서스캐처원(-5.2%) > 앨버타(-8.2%)  
 - (무역) 수출(C\$1,630억) > 수입(C\$874억) ⇨ 무역 흑자 지속  
 <2020년 캐나다 서부 3개 주 주요 경제지표>

구분	단위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실질 GDP	C\$억	2,424	3,071	771
실질경제성장률	%	-3.8	-8.2	-5.2
실업률	%	8.8	11.3	8.4
무역 규모	C\$억	941	1,161	402
상품 수출	C\$억	408	919	303
상품 수입	C\$억	533	242	99

자료원: Statistics Canada(2021년)

### □ 산업구조

- 산업별 GDP 기여도: 서비스 63.4% vs 상품 36.6%  
 - (서비스) 부동산(C\$903억, 14.5%) > 의료(C\$387억, 6.2%) > 금융(C\$322억, 5.2%)  
 - (상품) 광업(C\$1,107억, 17.7%) > 건설(C\$493억, 7.9%) > 제조(C\$416억, 6.7%)
- 업종별 추이  
 - 성장: 쉐 산업 중 금융(4.0%), 농림수산(2.4%), 부동산(2.0%) 업종 성장  
 - 하락: 오락/취미(-39.0%), 요식/숙박(-28.8%), 운송(-18.6%) 업종 큰 폭 하락  
 <캐나다 서부 5대 산업 성장률(단위: C\$백만)>

#	산업	2017	2018	2019	2020	성장률('19-'20)
1	광업	116,820	125,451	123,795	110,732	-10.6%
2	부동산	84,978	86,364	88,605	90,335	2.0%
3	건설	53,287	52,281	51,959	49,356	-5.0%
4	제조	45,946	46,688	45,607	41,659	-8.7%
5	의료	38,898	40,044	41,587	38,714	-6.9%

자료원: Statistics Canada(2021년)

### 3. 무역 현황(2021년 7월 누적 교역액 기준, 단위는 캐나다 달러임)

#### □ 수출입 현황

- 총 교역규모(수출+수입) 전년 대비 28.3% 증가한 1,828억 달러 → 668억 달러 흑자
  - (수출) '21년 상반기 加 서부 지역 수출, 전년비 35.2% 증가한 1,248억 달러
  - (수입) '21년 상반기 加 서부 지역 수입, 전년비 15.6% 증가한 579억 달러

- 지역별로는 BC주가 3개 주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적자

<2021년 7월 기준 加 서부 3개 주 수출입 현황(단위: C\$백만)>

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BC	30,640	34,670	-4,030
앨버타	73,617	16,955	56,662
서스캐처원	20,605	6,357	14,248
합계	124,862	57,982	66,880

자료원: Trade Data Online(2021년)

#### □ 품목별 교역현황

- 주요 수출 품목 일차 산업 중심 원자재, 수입 품목 기계, 운송장비, 건설기기 등
  - (주요 수출품) 제재목(138.3%), LPG(100.8%), 폴리에틸렌(52.8%), 유채유(42.9%)
  - (주요 수입품) 항공기(623.4%), 트레일러(70.7%), 트랙터(58.1%), 승용차(40.6%)

<2020년 加 서부 3개 주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C\$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0	2021 (7월)	증감(%)	코드	품목	2020	2021 (7월)	증감(%)	
1	2709	원유	58,250	48,449	44.2	2710	정유	5,879	4,725	16.8	
2	2711	LPG	8,648	8,784	100.8	8703	승용차	2,306	1,703	40.6	
3	4407	제재목	6,840	7,644	138.3	8471	PC부품	1,615	925	7.4	
4	1001	밀	6,801	4,400	8.6	8802	항공기	231	903	623.4	
5	3104	비료	6,045	3,492	-7.5	8517	전화기	1,220	749	8.8	
6	1205	유채씨	5,316	3,327	14.8	8431	기계부품	977	639	7.9	
7	3901	폴리에틸렌	3,469	2,847	52.8	8716	트레일러	633	636	70.7	
8	2701	유연탄	4,548	2,810	11.2	9403	가구	931	619	25.9	
9	4703	화학목재펠프	3,567	2,449	15.8	8701	트랙터	712	603	58.1	
10	1514	유채유	2,880	2,397	42.9	8429	불도저	794	581	24.9	
합계			106,364	86,603	44.1	합계			15,298	12,087	30.8

## □ 한국과의 교역 관계

- 韓, 2021년 상반기 對서부 교역규모 25억 1,600만 달러 ⇨ 전년 대비 1.7% 감소  
- 교역적자는 6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21.6% 감소

<韓, 對서부 3개주 교역현황(단위: C\$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7월)	증감(%)*
수출액	1,484	2,114	1,960	1,498	950	7.2
수입액	3,458	3,622	3,370	2,841	1,565	-6.4
무역수지	-1,974	-1,508	-1,410	-1,343	-615	-21.6

\* 주: 2020년 7월 누적 vs 2021년 7월 누적 증감률

- (지역별) 韓 수출액 규모는 BC(9.8%) > 앨버타(-2.0%) > 서스캐처원(-23.5%) 순  
<韓, 對서부 3개주 수출현황(단위: C\$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7월)	증감(%)*
BC	1,251	1,837	1,668	1,252	814	9.8
앨버타	197	244	257	206	114	-2.0
서스캐처원	36	33	35	40	22	-23.5

\* 주: 2020년 7월 누적 vs 2021년 7월 누적 증감률

- (품목별) 냉장기기(256%), 철강(후판, 248%), 펌프(42%), 전화기(43%) 등 수출 급증  
<한국 對 加 서부 3개주 10대 수출입 품목(단위: C\$백만)>

순위	수출					수입				
	코드	품목	2020	2021(7월)	증감(%)	코드	품목	2020	2021(7월)	증감(%)
1	7210	철강(평판)	66	57	58.7	2701	유연탄	1,054	403	-37.5
2	8413	펌프	75	55	41.7	1514	유채유	121	143	137.6
3	7216	철강(형강)	61	47	29.1	2603	동광	685	122	-66.6
4	8429	건설기계	53	35	15.5	2711	LPG	18	103	474.7
5	8418	냉장기구	33	34	255.7	4703	화학목재펠프	94	85	49.8
6	7305	철강(파이프)	98	31	-50.0	7502	니켈	45	68	171.4
7	7208	철강(후판)	23	27	247.9	4407	제재목	50	67	86.4
8	8517	전화기	43	27	43.4	4705	목재펠프	80	65	26.3
9	8431	건설기계부품	29	23	36.9	2106	식료품	111	59	-10.1
10	3923	포장용기	32	22	15.2	2709	원유	0	41	4,00
합계			513	358	30.1	합계		2,258	1,156	-12.6

자료원 : Statistics Canada

## V. 2021년 서부 캐나다 시장 전망

### □ 브리티시컬럼비아(BC) : 균형 잡힌 회복

- 하반기 경제활동 재개로 수출 성장, 기업투자 확대 기대 ⇨ 올해 성장률 6.4% 전망
  - (수출) 최근 세계 시장에서 목재, 광물, 에너지 등 원자재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고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등(2021년 상반기 목재 수출액 50% 증가)
  - (건설) 주택시장 호황으로 신규주택 착공 활기. 올해 상반기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천 가구 이상 증가할 전망
  - (투자) BC 소재 기업의 경우 올해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6%까지 늘릴 계획임(캐나다 통계청 Capex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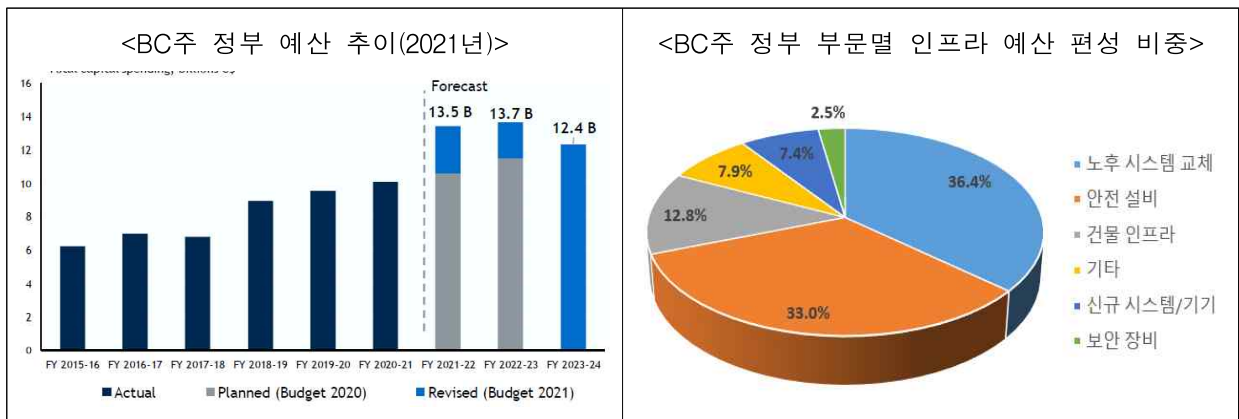
\* ①Coastal Gaslink 파이프라인 건설 재개(2023년 말 완료) ②Woodfibre LNG 프로젝트 개시(2025년 완공 목표)

<BC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20	2021	2022
실질 GDP(%)	-3.8	6.4	4.4
실업률(%)	8.9	6.7	5.6
소매 판매(%)	1.3	11.0	4.5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37.9	40.9	35.0
소비자 물가지수(%)	0.8	2.4	2.1

자료원: RBC 은행 보고서(2021년 6월)

-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 확대 편성
  - 정부 지출을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액, 공공 인프라 건설에 135억 달러 투자



자료원: 2021/22 BC주 예산안(2021년)

□ 앨버타 : 성장 가속 모멘텀

- 경제활동 정상화로 원유 수요회복, 주택수요 반등 ⇨ 2021년 5.9% 성장 전망
  -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앨버타 원유생산량 증산, 수출 성장에 기여
  - 주택수요 증가로 주거 건설 부문 투자 확대. 특히 올해 앨버타 주택 판매량은 캐나다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앨버타 경제, 2022년 이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 가능 전망
- 앨버타 실업률 8.7%로 하락, 하지만 고용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
  -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 지연으로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 것으로 전망

<앨버타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20	2021	2022
실질 GDP(%)	-8.2	5.9	4.8
실업률(%)	11.4	8.7	6.4
소매 판매(%)	-2.7	9.3	2.9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24.0	28.6	28.6
소비자 물가지수(%)	1.1	2.3	2.2

자료원: RBC 은행 보고서(2021년 6월)

○ 2021 부문별 예산 비중



RBC 은행 보고서, 2021/22 앨버타주 예산안(2021년)

☐ 서스캐처원 : 점진적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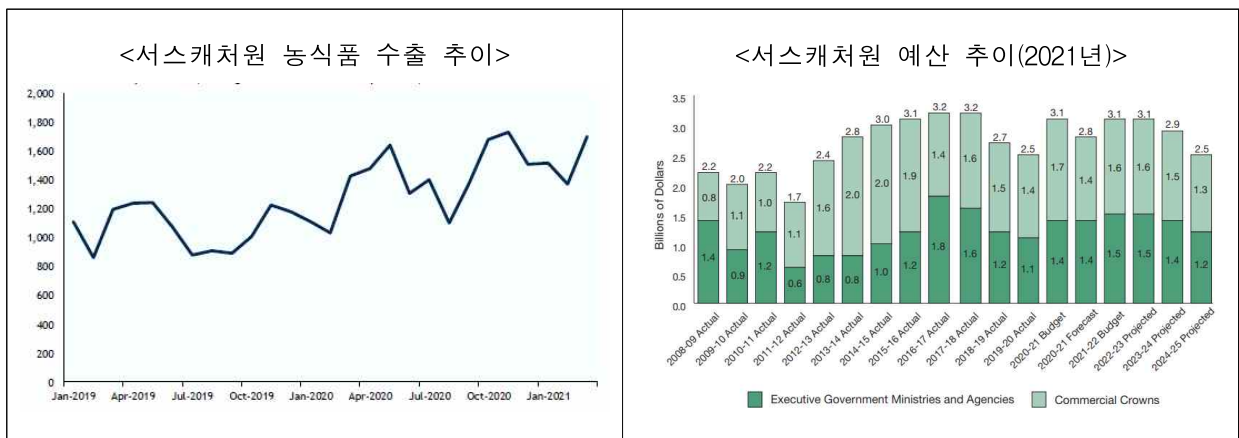
- 경제 재개 이후 상품 시장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 ⇨ 올해 성장률 5.7% 전망
  - (수출) 농식품이 수출 성장세 견인. 올해 상반기 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4% 높은 수준을 기록(밀과 카놀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를 얻고 있어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크게 상승. 콩을 포함한 다른 농작물 수출도 상반기 호조를 보임). 또한 농작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력 수출 품목인 비료 수출 전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 지난해 중반부터 지역 주택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올해 4월까지 주택 판매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68% 이상 증가. 하반기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 건설시장의 강세가 예상됨. 2021년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4,600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서스캐처원 2021년 주요 경제 지표 전망(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실질 GDP(%)	-5.2	5.7	4.0
실업률(%)	-4.7	6.5	5.9
소매 판매(%)	-1.3	8.0	2.9
신규주택착공(천 가구)	3.1	4.6	3.2
소비자 물가지수(%)	0.6	2.6	2.3

자료원: RBC 은행 보고서(2021년 6월)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추경 편성, 지역 인프라 건설 지원에 집중
  - 2021/22년 예산안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건설(학교, 병원, 도로, 기타 SOC 인프라 등)에 총 31억 달러 추가 예산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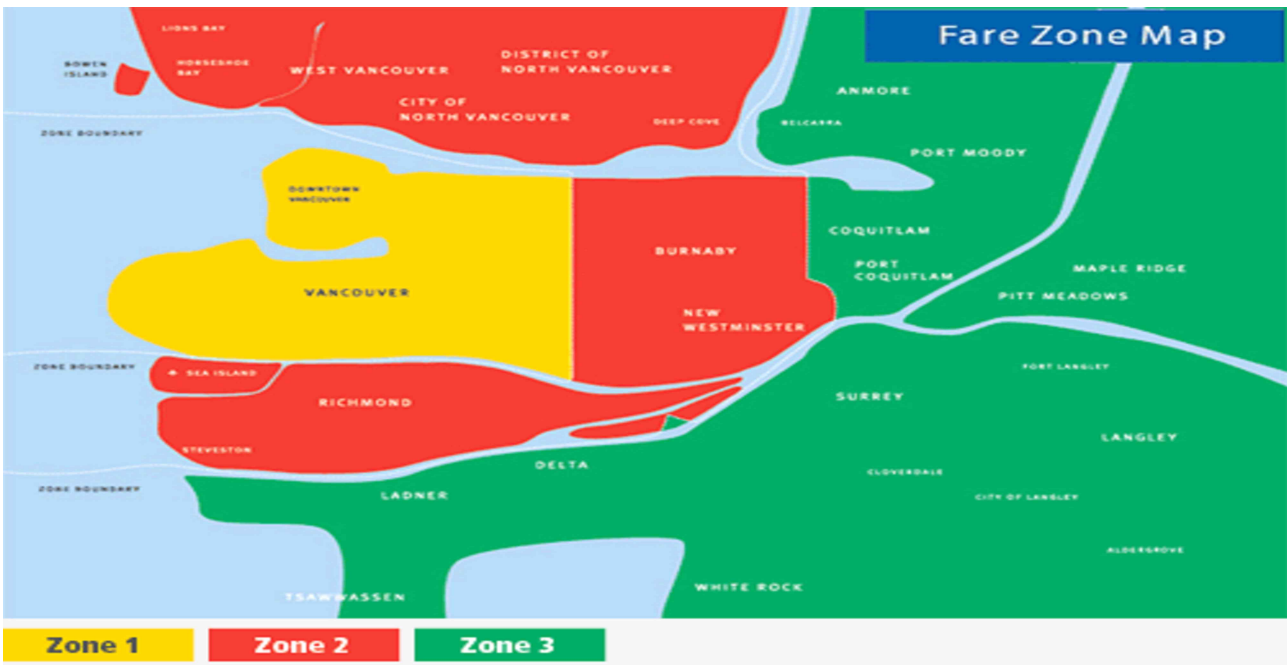
자료원: 2021/22 서스캐처원주 예산안(2021년)

**[붙임] 현지 체류 참고자료**

**☐ 대중교통**

- (스카이트레인, 기차) 밴쿠버의 교통체계는 전체 광역밴쿠버를 3개의 존(Zone)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C\$2.75(1존)~C\$5.50(3존) 가격의 한 장의 티켓을 구입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90분간 모든 교통수단(버스, 스카이트레인, 수상버스(Sea Bus)을 이용할 수 있음. 평일 오후 6:30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존에 상관없이 1존 가격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

<광역 밴쿠버 대중교통 요금 존(Zone) 안내도>



- (택시) 호텔 및 도심 외각지역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좋으며, 기본요금은 C\$3.20부터 이후 54.44미터 마다 \$0.10씩 과금됨. 대개 요금의 10%의 금액을 택시 기사에게 팁을 주는 관행이 있음.

※주요 택시: Yellow Cab(604-681-1111), Vancouver Taxi(604-871-1111)

## □ 주요 명소

### ○ 스탠리 공원 (Stanley Park)



- 다운타운 서북쪽 위치, 면적 400만m<sup>2</sup>, 뉴욕 센트럴 파크의 1.1배
- 1888년 당시 총독인 스탠리 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수족관 공연장, 수영장 등 자연과 함께 다양한 활동 가능함
- 주요 포인트: 토템폴(장승), Prospect Point(전망대), English Bay

### ○ 잉글리쉬 베이 (English Bay)



- 다운타운 서쪽 끝자락에 접하고 있어 해변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음
- 8월에는 국가별 불꽃놀이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

### ○ 그라우스마운틴 (Grouse Mountain)



- 노스밴쿠버 위치. 해발 1,200m. 호텔에서 30분 정도 소요
- 여름에는 트레킹, 겨울은 스키 등 다양한 활동 가능
- 정상에서 밴쿠버 다운타운을 비롯한 전경 관람 가능 (정상까지 곤돌라 탑승)
- \* 곤돌라는 15분 간격 운행하며, 최대탑승인원 100명 이상

### ○ 밴쿠버 아트갤러리 (Vancouver Art Gallery)



- 원래는 대법원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1983년부터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시작
- 빅토리아주 의사당과 페어몬트 옴프레스 호텔을 설계한 래트버리에 의해 설계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과 BC주 출신 아티스트인 에밀리카의 작품 다수 전시

○ 개스타운 (Gastown)



- 다운타운 동남쪽 위치, 밴쿠버 발상지로 알려짐
- 1867년 영국 증기선 선장이었던 존 데이튼이 정착, 최초 술집을 개점, 그의 별명인 Gassy Jack이 알려져 개스타운으로 불리게 됨
- 옛 밴쿠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기념품 가게, 특색 있는 상점, 개성 있는 식당 다수
- 주요 포인트 : 증기시계(15분마다 증기배출), 개시잭동상

○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 다운타운에서 Granville Bridge를 지나 남쪽에 위치
- 원래 공장단지였으나 리모델링 후, 관광지로 거듭남
-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접할 수 있으며, 기념품가게, 갤러리 소재
- 주요 포인트: 퍼블릭마켓(현지 시장)

○ 휘슬러 (Whistler Mountain)



- 밴쿠버 북방 120km 지점에 위치한 세계적 스키 관광지
- 스키장은 매년 1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개장되며 여름에도 휴양지로서 관광객을 위해 산 정상까지 곤돌라 운행

○ 해리슨 온천 (Harrison Hot Springs)



- 밴쿠버시 동쪽으로 12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황 온천

□ 주요 식당 리스트

구분	상호명	전화	주소
한식	수라	604.687.7872	1518 Robson St., Vancouver
	장모집	604.687.0712	1575 Robson St., Vancouver
	북경 반점 (한중식)	604.629.8822	1638 Robson St., Vancouver
중식	Kirin Restaurant	604.682.8833	1172 Alberni St., Vancouver
	Dinesty	604.669.7769	1719 Robson St., Vancouver
일식	Aki	604.682.4032	1368 W. Pender St., Vancouver
	Kamei Royale	604.687.8588	1066 W. Hasting St., Vancouver
양식	Keg Steakhouse	604.685.4388	1121 Alberni St., Vancouver
	Cactus Club Cafe	604.687.3278	1136 Robson St., Vancouver

□ 주요 한국 식료품점

상호명	전화	주소
H-mart(다운타운)	604.609.4567	590 Robson St., Vancouver
H-mart(코퀴틀람)	604.939.0159	100-329 North Road, Coquitlam
한남수퍼마켓	604.420.8856	106-4501 North Road, Burbaby
김스마트	604.872.8885	523 E. Broadway, Vancouver

□ 주요 여행사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하나투어	604.321.8384	103-4501 North Road, Burnaby
OK투어	604.893.8687	9920 Lougheed Hwy, Burnaby
KJ투어	778.241.6367	407-3105 Lincoln Ave, Coquitlam

#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http://www.kotra.or.kr)